



경고의 뉴스레터 “나팔”

발행일 : 2014년 7월 발행 (제 51호)

발행 : 경고의나팔 출판

가격 : 무료배부

나팔 HP: <http://www.geocities.co.jp/Technopolis-Mars/5614/>

목차:

◎권두 메시지 '단단한 음식' 예레미야

◎간증 '승자의 행보' E3

◎알림 코너 '신간 서적 소개'

<권두 메시지>

'단단한 음식' by 예레미야

오늘은, "단단한 음식"으로 종말의 계시를 이해하려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이 필수임을 살펴봅시다.

<성경은 단단한 음식에 대해 이야기한다>

단단한 음식을 구한다고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히브리서의 설명을 보세요.

히브리서 5:5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5:12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5:13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저희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5:14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위 절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성경의 가르침은 단단한 음식과 부드러운 음식의 두 가지 가르침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모습은 젖이나 아기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초보적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단단한 음식, 성인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깊은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가르침은 단단한 음식이다>

그런데 이 구절 속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말씀입니다.

"아직 우유만 마시고 있는 자들은 정의의 가르침이 통하지 않습니다. 유아입니다."

여기에는 정의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의와 심판에 대한 것은 다 단단한 음식의 부류이며, 그 결과 우유만 마시고 있는 것, 즉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초보에 체재하는 사람들은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의의 표현과 종말의 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사항 이해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며, 종말의 날 하나님의 심판과 의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등은 모두 수수께끼와 비유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 쉽사리 한번에 독해할 수 없는 책입니다. 7개의 머리와 열 별 가진 짐승 태양을 입는 여자 등 복잡 괴기 한 내용이 자세히 밀교 또한 읽을 가치가 없는 책입니다.

이 책은 난해합니다. 그러나 위 "우유만 마시고 있는 듯한 자마다 정의의 가르침에 능통하지 않다"라는 말에 의하면, 우리는 이러한 난해한 단단한 음식에 도전 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다 것을 알아 봅시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종말의 날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와 심판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알아 봅시다.

<영아를 가진 여자는 비참하다>

성경은 우유만 마시면 아이 즉 부드러운 음식 밖에 허용하지 않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신자로 채워진 교회는 비참한 종말을 극복 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다음과 같이 비유를 들며 말합니다.

"마태복음 24:19 그 날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 부분의 이해로, 여자는 교회의 예입니다. 임신한 여자와 영아를 가진 여성의 공통점은 유방을

필요로 하는 유아가 있는 것입니다 만, 그것은 위 히브리서에서 부드러운 음식을 필요로 하는 신자들에게 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자로 채워진 여자, 교회는 종말의 날에 불행이며, 성경이 말하는 종말에 대한 계시를 이해 할 수 없는 것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의 예>

단단한 음식의 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단단한 음식에 정통하며, 그는, 히 7장에서 창세기의 다음 메루키데제구 대한 아무렇지도 않은 계정에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 직분에 대해 해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18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4:19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14:20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창세기의 아브람의 설명은 누구나 알고, 읽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숨겨져 있는 단단한 음식, 하나님이 숨겨진 가르침을 히브리서 기자는 해석했습니다. 이것이 단단한 음식의 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 쓰여진 책이고 많은 단단한 음식으로 가득 찬 책이라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메루키데제구의 설명에 그치지 않고, 많은 성경 구절에 포함되어 지금도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며 해명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70 주 비유>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성경의 종말에 대한 언급은 단단한 음식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따라서, 단단한 음식에 도전하고 하나님에 의해 계시를 열어주는 것을 요구하지 않을 이 종말의 설명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을 알아 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단단한 음식을 찾아 보겠습니다.

여기서, 단단한 음식의 예로 다니엘서의 소위 70 주에 대한 가르침을 생각합시다. 성경은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70 주임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다니엘서 9:24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성경은 다니엘의 백성에 대해 70 주 (원어에서는 70 의 7)이 정해져 있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니엘 때부터 종말의 재림의 날까지 그것은 70 주이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한단만, 그러나 잘 생각하면 이것은 현실의 역사를 보면 모순된 말씀입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70 주이란 숫자를 문자로 계산한다면, $70 \times 7 = 490$ 일, 만약 하루를 1년 생각해도 490년을 가르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이미 다니엘 때부터 현재까지 2000년 이상 거쳐 있으며, 70 주 등 벌써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 까지나 '70 주에 정해져있다'며 종말의 날까지의 숫자는 70 주임을 강변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모순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그 기간을 70 주이다라고 단언함으로써 뭔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여기에 숨겨진 가르치고 비밀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70 주에 대한 단단한 음식, 숨은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 힌트는 신약의 다음 설명이라고 생각됩니다.

마태복음 18:21 그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18:22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 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70 주에 해당하는 (70 의 7) 표현은 신약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부분입니다. 같은 표현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곳의 성경 구절은 모두 관련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 형제의 죄를 "일곱 번을 일흔 번 (70 의 7)까지"용서의 표현은 70 주 가르침을 잘 안다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라고 하면 이런 것입니다. 주님은 이 구절에서 형제를 용서 한도에 관해서 그것은 7 번이 아닌 7 번을 70 배 (70 의 7)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7 번을 70 배 (70 의 7)은 어떤 의미에서는 형제를 용서하고 관용을 가진 기간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님은 형제의 죄를 무한대로 허용하며 한없이 용서와 말씀은 없었습니다. 반대로 한도를 마련해 그것은 7 번을 70 배 (70 의 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그것을 초과 또한 형제가 죄를 계속한다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말하는 70 주와는 곧 하나님이 "기독교인의 죄악을 용서하고 인내 한도의 기간"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 한도의 기간 그것이 70 주입니다. 그래서 70 주를 초과 또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계속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에 임하게 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간이 70 주이며, 말씀하신 그 숨은 의도는 그 기간이 지나고 70 주를 거쳐 게다가 배도 교회가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는 심판의 때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산과 바위를 향해 도움을 구한다>

또 성경의 이야기 단단한 음식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종말 종말의 그 날 많은 사람들이 산과 바위를 향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6:14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다니엘의 70 주

6:15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6:16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6:17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곳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산 사람들이 그날 산과 바위를 향해 "우리 위에 무너져 걸려 보좌에 있는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분노에서 우리를 숨겨 달라."고 말했다 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잘 생각한다면 이 부분도 이상한 부분입니다. 미닫이와 밀기울이 넘어 온다면 모를까 산과 바위가 넘어지기 시작한 경우 다 압사하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커녕 죽어 버리고,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왜 이렇게 그들은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단단한 음식이나 숨겨진 수수께끼가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 일을 생각해 봅시다. 바위에 관해서는 성경 시편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편 62:2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62:3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62:4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 시편은 하나님 이야말로 「바위」인 것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 이신 관한 비난든지 공격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한 사람을 덮치는 하나 너희는 빠짐없이 때려죽이려고하고있다. 마치 기울어진 성벽이거나 비틀거리는 돌담처럼."

성벽이나 돌담은 돌과 바위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그 성벽의 돌과 바위를 공격하고 사람을 습격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요? 사람은 특히 교회의 초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배교의 날 배교 교회에서 이에스키 목록의 말씀 가르치고 인격하고 모든 공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석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 정체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잔인하다, 관용이 없는 등으로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 이런 세상적인 트렌드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을 타고, 성경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의 날은 그 반석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다음과 같이 그들은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걸려 보좌에 있는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분노에서 우리를 숨겨 다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반석을 부정했다는 있다면 그날 어디에 구원이 있는 것일까요? 또한 동일한 종말 개소에는 이렇게 씌여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14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리는 성경의 비유입니다. 성경은 옛날 두루마리에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날 '하늘은 두루마리가 감기도록 사라지는' 일이 쓰여져 있습니다. 즉, 두루마리 성경에 대한 공격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부정된다, 없어져가는 것이 예언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된다 인하여 바위 이신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부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의 비유>

성경은 많은 단단한 음식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기술 중에도 단단한 음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대로, 심각하게 단단한 음식을 추구 생각이 없다면, 종말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한 음식이 포함 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4:17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 가지 말며

위 말씀은 잘 생각하면 이상한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는 갑자기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왜 지붕 위에 있게 된 것입니까? 아무 이유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신비입니다. 또한 그는 옥상에서 내려 말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어딘가 불편하게 생각됩니다. 옥상에 올라 채 일체 식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화장실은? 잘 때는 어디에 자기할까요? 참으로 수수께끼의 수수께끼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상한 부분인데, 여기에도 단단한 음식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수수께끼를 생각해 봅시다. 옥상에 상당하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느헤미야의 다음 "지붕"이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8:15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는지라

8:16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들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이 기술은 초막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 대 축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축제도 잘 생각하면 이상한 축제이며, 각각 자신의 집이 있는데 집 지붕에 임시 암자를 만들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 정원에 초막을 만들 수 명하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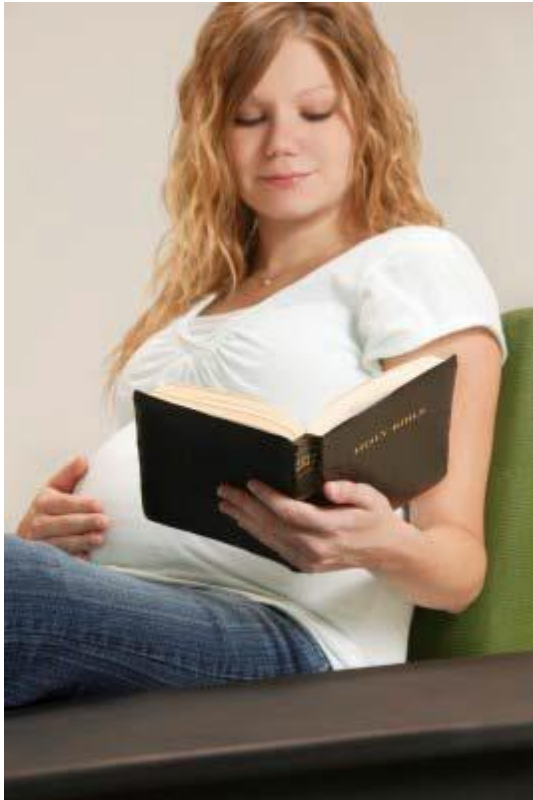
왜 집이 있는데, 집을 나와 그 옥상 (지붕)에 임시 암자를 만들고 거기에 살아야 한다 있을까요? 내가 알기로는 이 축제는 지하 교회를 가리키는 비유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집, 교회의 예를 이해한다면 그 종말의 날에 교회는 데살로니가 서에 기록 된 대로 배교에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집, 즉 교회를 나가기도 배도에 빠진 하나님의 성전을 나가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교의 교회를 나오고, 초막, 즉 지하 교회를 만들 수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지고 나가려 아래로 내려와서는 안됩니다."은 그 지하 교회를 만든다면 거기에 머무는 것을 결코 가정 즉 배도의 교회 다시는 안 된다고 조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말씀, 특히 종말에 관한 말씀은 단단한 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 깨닫지 못한 형태로 포함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단단한 음식에도

도전하고 종말의 날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구합니다.

- 이상 -



그날 비참한 것은 임신 한 여자와 영아를 가진 여자이다

얼마 전 토요일 제자 공부 모임에서 예레미야 목사가 말한 메시지를 통해서 받은 배우에서 간증을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토요일 메시지는 HP 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만, 모처럼이니 소중한 말 하나 생각했으니, 이 자리를 빌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때 저도 그랬지만, "기독교인"고 문자 "군건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무조건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좋지만, 그러나 성경 곳곳에서 그 것을 뒤집는 말씀을 렘넬트 그리스도 교회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 하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테마도 내걸고 있었지만, "승리자"입니다. 더 말한다면, "이기는 자는 하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을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처럼이므로 그 부분을 살펴봅시다.

참조 요한계시록 2:7, 11, 17, 26, 27, 3:5, 12, 21

2: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2:11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2:1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2:26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27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3:5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3:12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3:2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앓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러한 부분에서 "이기는 자"하나님의 보상이나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해지고 있습니다. 지면 관계 상 모든 것을 설명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를 보고 싶습니다.

2:11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첫째, "둘째 사망" 에 관한 것이지만, 다음 말씀을 참조하세요.

참조 요한계시록 20:13 - 15

20:13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20:14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20: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하듯이, "둘째 사망"이란, "불못에 던져 질 것"입니다. 이야기는 계시록 2 장 11 절에 돌아가지만 "이기는 자는 결코 두 번째 죽음에 의해 손상 될 것은 없다"고합니다 같이 승리자는 "불못"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불못"에 던져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기독교인이라도 "승리자"가 되지 않는다고 멸망 해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 어떻습니까? 적어도 나 자신은 이것에 동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승리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때 넣으면 알았는데 "하늘 나라"가 최악 "빈 약속"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오래 전의 일입니다만, 지금부터 약 2 년 전에 본 렘넌트 교회 오전 예배에서 고린도전서 전서 15 장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승리'에 대한 예레미야 목사가 메시지를 되어 있던 것을 기억했으므로, 그 부분도 함께 보고 싶습니다.

참조 고린도전서 15:54 - 57

15:54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15:55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15:56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15:5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에서도 '승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당시에 위에서 언급 한 요한 계시록 3 장 5 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참조 요한계시록 3:5

3:5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때, "위 말씀은 '부활'에 관한 암시입니다. 승리자는 부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하지 않는 사람은 부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과 '승리'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최근 배웠다 "이기는 자'가 '부활', 즉 '영생'을 얻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무엇에 대해 "승리"를 해야 하지 않나? 라고 하면, 고린도전서 15:55, 56 에 그 답이 있습니다. "**사망의 쏘는 죄**"라고 있습니다 같이 "**죄**"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는 "죄"에 관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죄**"에 대해 지지하고만 있다면 "하늘 나라는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승리자"가 "천국의 조건"의 하나인 얘기를 해 주셨습디만,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처음 들었다" "아니 아니 전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반응은 다양한지도 모릅디만, 어쨌든 "무조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없는 것은 아닐까요? "죄악"제대로 승리 "천국"을 상속하는 기독교인과 패배가 계속되는 "불연못"에 떨어져 버리는 크리스천으로 양분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건부 따위 듣지 않아! 하나님은 사랑의 편이니까 기독교인은 모두 천국에 넣어 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성경은 "우연"이 아니라도 "깊은 뜻"으로 이러한 조건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해두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조건"이라고 말하면,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번은 중학생의 장남이 "○○의 게임기를 구입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부부 상담하여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번 테스트에서 일등하면 사줄게"라고. 그러자 무려 그 아들은 성적을 일등으로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바로 부모님의 제시한 조건을 충족 게임기를 손에 넣은 것입니다. 만약 두 번 이상이라면, 사주지 않았습디다.

이것은 세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하늘 아버지가 말하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 포상으로, "천국"에 넣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말씀, 즉 성경 말씀에 쓰여져 있는 "조건"에 따라 걸어 가고 싶습니다. 반대로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면...방금 전의 자녀가 톱을 가지고 가지 않는 경우 게임기를 사주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 나라"에 두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심 싶은 것이 있습니다.

꼭 주님이 나와있는 "조건"에 따라 나라를 상속 할만한 행보를 해 나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중요한 것을 말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영예가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자의 행보